

3野 '이상민 탄핵안' 본회의 보고... 내일 표결 추진

민주 "이태원서 159명 무고한 희생에도 정부 책임지는 모습 없어" 김진표 의장, 의사 일정 협의 요청... 국회법상 72시간내 표결 원칙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었으며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 요건이 안된다"고 비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이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장명호 국회 의사국장장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 국장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73인으로부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국회법에 따라 (안건이)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도,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난 상황에서 이 장관이 책임질 일만 남았지만, 대통령과 검찰, 정부·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이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사실상 대통령실이 수용을 거부한 만큼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다.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당론'이라는 족쇄를 채워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정치를 회화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또 "검찰 공소장 여기저기에 이 대표의 범죄 사실과 법 위반 사항이 즐비하다"며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기어코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가더니, '탄핵'과 '특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민주당 내 비판 목소리마저 묵살됐다"며 "이재명 방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탄'을 위한 민주당의 사당화가 완성됐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요건 자체를 문제 삼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김승남 의원, 농업 예산 확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6일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와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식량자급 인지-결산제도 도입법'(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기금법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에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2011년 '2015년까지 식량자급률 57.0%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식량자급률은 2010년 54.1%에서 2020년 45.8%로 악화됐고, 곡물자급률도 2021년 20.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체 국가 예산에서 약 5%를 농무부 예산으로 배정하며 곡물자급률을 약 12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또 2021년 기준 유럽연합(110%)이나 영국(88%), 중국(92%), 러시아(151%), 캐나다(133%) 등이 곡물자급률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나라도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尹 대통령 순천만정원박람회 참석 요청"

국힘 전남도당 위원장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줄 것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언론과의 통화 등에서 "내달 1일부터 개최되는 순천만 정원박람회는 미래 시대를 창출하는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하나 되는 정정기후 종합예술"이라며 "탄소제로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행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순천 방문은 변함없는 전남에 대한 애정과 관심뿐 아니라 전남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출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여당의 책임 있는 위치에서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순천시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며 "나아가 전남발전을 위해 정부와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혁, 비례·대표성 강화"

1박2일 워크숍 결과 브리핑 "지방소멸 대응·다양성 증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1박 2일 워크숍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해, 지방소멸 대응·지역주의 완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부터 서울의 한 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어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워크숍 결과 ▲현행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방안이 도출됐다.

정개특위는 이 가운데 복수의 방안을 골라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특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농촌은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여기에 권역별 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남 위원장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개선하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개방형 명부

부분 도입은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에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명부란 비례대표 의원을 뽑을 때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선택해 뽑을 수 있는 제도다.

남 위원장은 또 "중복입후보제 도입과 함께 개방형 명부를 채택하는 것은 여성 후보자 의무 추천제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 (여야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 입후보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개방형 명부 채택 과정에서 여성 후보자 비율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른 시일 안에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이를 다시 법안 형태로 만들어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